

DDT, 30년 전 임신장애 지금도...

미국 바브라 콘 박사, 2세대 이어 임신율 저하 ... 장기적 영향 끼쳐

약 30년 전 DDT에 노출됐던 여성에게서 태어난 2세대의 임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DDT는 30년 전만해도 널리 사용됐던 유명한 살충제로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.

미국 여성-아동보건연구소의 바브라 콘 박사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<랜싯>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DDT가 한창 유행하던 1960-63년 사이 DDT에 노출됐던 여성들이 출산한 딸들의 임신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
콘 박사에 따르면, 30여년 전 출산 며칠 후 채취해 보관해 두었던 어머니들의 혈액 샘플의 DDT 농도와 현재 27-31살이 된 딸들로부터 측정한 혈중 DDT 수치를 비교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딸들의 임신율을 조사한 결과, 혈중 DDT 수치가 클수록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혈중 DDT가 ℓ 당 $10\mu\text{g}$ 올라갈수록 임신율이 32%씩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콘 박사는 DDT가 조산아,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만큼 DDT가 여성 호르몬 체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못된다고 덧붙였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7/01>